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김 병 권**

차 례

- | | |
|---------------------|------------------|
| I. 서론 | IV. 작품의 爲人演說의 의미 |
| II. 소대성전 읽기의 내재적 원리 | V. 결론 |
| III. 布施와 福德의 인과 구조 | |

I. 서론

<소대성전>의 주인공은 소양의 아들인 소대성이다. 소양은 청룡사를 중수하는 일에 황금 수천 냥을 시주하고 소대성을 낳는다. 소대성은 노인이 모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가진 돈을 모두 준다. 노승은 갈 곳이 없는 소대성을 보살펴주며, 화덕진군은 부처의 지시를 받고 소대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한다. 그리고 소대성은 북방 호족을 정벌한 공을 세우고 노왕으로 즉위한다. 이러한 사실은 보시와 그 복덕의 인과관계가 <소대성전>의 창작에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글은 <소대성전>의 창작 원리를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로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소대성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두 편의 연구사 논문에서 연구 분야별로 잘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리되어 있다¹⁾. <소대성전>의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위의 두 연구사에 미루고,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동일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통치질서가 변모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반의 정치적·경제적 몰락상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설명하였으며,²⁾ 서대석은 정치적 갈등과 관계없이 한 가정의 파괴와 재건을 다룬 가정 중심의 작품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³⁾ 그리고 박일용은 조선 후기 토지로부터 이탈된 유랑계층의 환상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욕구가 반영되어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설명하였다.⁴⁾ 이런 관점과는 달리 소대성의 성명을 성명학적으로 분석하여 작품을 구성한 원리가 모색된 적도 있다.⁵⁾ 이처럼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대성전>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한 글에서는 이 작품의 중요한 면은 거의 밝혀졌다고 판단하였다.⁶⁾

<소대성전>이 소양의 정치적 몰락과 소대성의 경제적 몰락을 서술하며, 가정의 파괴와 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제시된 작품의 의미는 설득력은 갖는다. 그렇지만 작가가 <소대성전>에서 정치적·경제적 몰락 또는 가정의 파괴와 재건을 작품의 중심 내용으로 서술하였는가, 아니면 작가의 창작 의도를 표현하거나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적·경제적 몰락 또는 가정의 파괴와 재건을 서술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면 위에서 제기한 과제를 어떤 관점으로 해결하고 작품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론적인 시각은 연구자의 관점으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연구자의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작가의 의도가 무

1) 김일렬, 「소대성전」, 완암김진세선생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소설 작품론』(집문당, 1990), 323~336쪽.

이복규, 「소대성전」, 황태광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고소설연구』(일지사, 1993), 696~711쪽.

2)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 313~314쪽.

3)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72~77쪽.

4)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34쪽.

5)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동남어문학회, 『동남어문논집』 제 19집(동남어문학회, 2005), 51~71쪽.

6) 김일렬, 앞의 논문, 323쪽.

시되는 모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내부에서 연구 시각을 모색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대성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창작 원리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내적 원리를 모색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원리에 근거해서 작품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작용하고 있는 원리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II. 소대성전 읽기의 내재적 원리

1. 현실 문제의 고뇌

<소대성전>은 시작 단계에서 소대성의 출생과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소양과 그를 방문한 노승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된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사상은 <소대성전>의 창작 원리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소양과 노승의 대화를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를 모색할 수 있다.

노승이 소양을 방문한 이유는 노승의 발언을 통해서 설명된다.

- ① 그 중이 우어 왈 “소승은 서역 영보산 청룡스의 잇삽던니 절이 퇴락호와 불상이 풍우을 피치 못호오미 중슈코즈 호되 물역이 부족호와 경영호은 제 오러옵더니, 듯사온즉 상공계옵서 은덕을 베푸러 적선을 죠와 호신다 호오미 철니을 지척삼아 왓는니다.”<소대성전, 제1장 후면>⁷⁾

①은 청룡사의 노승이 소양에게 시주를 권하는 내용이다. 노승은 소양이 “은덕을 베푸러 적선을 죠와”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발언은 소양의 은덕과 적선을 찬양함으로써 소양에게 청룡사를 증언하는 일에 시주할 마음이

7) <소대성전>(완관 43장분, 권우행 교수 소장)의 제1장 후면을 뜻한다. 이하에서 출처는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되 작품명은 생략한다.

일어나도록 한다. 따라서 소양과 노승은 시주를 방편으로 불교적 인연에 따라서 만남을 이룬 것이다.

소양은 불전 시주를 제의한 노승과의 대화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한 후에 발언할 정도로 신중한 인물이다. 소양이 노승에게 발언을 하기 전에 생각한 내용은 그의 내면 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소양이 발언을 하기 전에 생각한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② 상서 생각하되 ‘니 비록 초야의 못처씨나 일흠은 우주의 덩퍼시니 범상한 중이 었지 니게 거만하리요?’<제1장 후면>
- ③ 상서 생각하되 ‘니 지물이 비록 만흐나 즈식이 업시미 후일의 남의 기물이 될지라. 차라리 불전의 신공하여 훗길리나 닷글니라.’<제1장 후면~제2장 전면>

②는 소양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한 내용이다. 소양은 “베슬이 병부상서로 일흠이 조정의 진동하”<제1장 전면>던 인물이었다. 그가 “니 비록 초야에 못처씨나 일흠은 우주의 덩퍼시니”라고 생각한 것은 벼슬을 그만 두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자부심을 나타낸 것이다.⁸⁾ 이런 자부심은 과거의 권위와 명예에 집착하여 일어난 것이며 ‘나’가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뜻한다. 그리고 “범상한 중이 었지 니게 거만하리요”는 노승이 범상한 중이 아니라고 인정한 생각이지만, 그 이면에는 범상한 사람이 찾아오는 일을 거만한 행동으로 여기는 자만의식이 들어 있다. 이런 의식은 ‘나’는 ‘남’과 다르다는 구분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남’을 ‘나’와 구분하는 생각은 타인을 자신과 차별하는 의식이다. <소대성전>에서 소양은 자신의 존재를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남을 자신과 차별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③은 소양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한 내용이다. 소양은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니 지물이 비록 만흐나 즈식이 업시미 후일의 남의 기물이 될지라”라고 생각한다. 소양의 생각은 자식이 없는 인물로서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소양은 “스후 빅골인들 누라 거두며 선영 형화를 쓴케 되니, 쥬거도 죄인이로다.”<제1장 전면>라

8) 조동일, 앞의 책, 311쪽.

고 개탄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식이 없는 처지를 죄인이라고 여겼다. 이런 죄의식은 자식을 둔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라리 불전의 신통하여”라는 생각은 재산을 불전에 시주하고 불교에 귀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훗길리나 닷글니라”라는 내용은 죽은 뒤의 일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죽음에 대한 걱정은 생명이 유한하다는 한계의식에서 일어난 것이다. <소대성전>에서 소양은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열등의식과 한계의식에 사로잡혀 고뇌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양의 내면 의식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양은 과거의 명예와 권위에 집착하여 우월의식과 차별의식을 지닌 인물이다. 둘째, 소양에게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열등의식과 한계의식이다. 셋째, 소양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한 재산을 불전에 시주함으로써 불교에 귀의하려고 결심한 인물이다.

2. 보시의 본질

소양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전 시주라는 방안을 결심하였는데, 소양이 노승에게 발언한 내용과 노승이 소양에게 발언한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④ 답왈 “니 비록 가는 허는 디사 멀이 오신 경을 포허리로다. 절을 중수호 올진디 얼마나 허면 중수호 올릿가” <제2장 전면>
- ⑤ 중이 답왈 “물역의 다과는 그지 업사오나 상공의 처분이로쇼이다.” <제2장 전면>
- ⑤ 상셔 혼연니 허락호시고 황금 슈천양을 주며 왈 “디스 누지에 와 불전을 위호신 정성이 감격호지라. 나는 이 지물을 두어 전호 고지 업습고 불상이 퇴락호여다 호오미 보티여 씨시게 호옵고, 디스는 부체의 제즈라 절을 중수호옵고 불전의 발원호야 병든 즈식 하나이느 접지호시게 호옵쇼셔” <제2장 전면>
- ⑥ 노승이 우어 왈 “금은을 주시고 즈식을 어들진디 천호의 무즈식호 스펀이 닛사올릿가?” <제2장 전면>

④는 소양이 노승에게 시주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내용이다. 소양은 “니 비록

가는 ㅎ느”라고 단서를 붙인다. 이 단서는 세상 사람이 자기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할지 모르나 시주할 만한 재산이 있다고 과시한 것이다.⁹⁾ 소양은 “절을 중수 ㅎ을진디 얼마나 ㅎ면 중수 ㅎ을잇가” 라고 묻는다. 이 물음에는 절을 중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시주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리고 “디사 멸이 오신 정을 포 ㅎ리로다.”는 노승을 돕는다는 명분을 통해서 생색을 내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진다.

㉠은 소양이 노승에게 절을 중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물었을 때에 노승이 소양에게 대답한 내용이다. 노승이 소양에게 “상공의 처분이로쇼이다.”라고 말한 대답은 겉으로 보면 불사를 위해 보시를 행하는 데 정해진 금액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생색을 내는 마음 또는 우쭐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금강경』은 “相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 <『금강경』, 제4분>¹⁰⁾라고 설명한다. 소양이 생색을 내는 마음 또는 우쭐하는 마음을 두는 것은 相에 머무는 것이다. 따라서 노승의 발언은 『금강경』의 가르침과 같이 相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보시를 강조한 것이다.

㉡는 소양이 시주에 대한 보답을 요청한 내용이다. 위의 발언 가운데 “병든 죽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소양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얻으려는 소양의 의지와 소양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게 된다. 소양이 보시를 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들을 얻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소양은 보시를 행하면서 아들을 얻기를 기대한 인물이다.

㉢은 노승이 시주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소양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노승의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보시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는 ‘나’의 실체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

9) 조동일, 앞의 책, 311쪽.

10) 무비 역해, 『금강경오가해』(불광출판부, 2004), 144쪽. 이하에서 『금강경』의 내용을 이 자료에서 인용하지만 쪽 수를 밝히는 일을 생략한다.

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사람이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은 ‘나’의 우월의식과 ‘남’에 대한 차별의식을 끊어야 가능하다. ‘나’와 ‘남’의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향해야 신심이 청정하게 된다.¹¹⁾ 『금강경』은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菩薩爲利益一切衆生 應如是布施),” <『금강경』, 제14분>라고 설명한다.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 보시하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승은 『금강경』의 가르침과 같이 ‘나’만의 이익을 위한 보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비수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보아진다.

지금까지 노승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 보시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재산을 과시하는 마음과 생색을 내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하고, 둘째는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시를 해야 하며, 셋째는 보시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 깨달음의 복덕

노승의 발언은 소양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결과 소양은 보시를 통해 자식을 낳고자 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다. 소양이 보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다음의 대화로 나타난다.

- ⑥ 상서 더왈 “글언 말삼니 안이라 정성으로 발원호미로쇼니다.” <제2장 전면>
- ㉮ 노승이 답왈 “지성이면 감천니라 호오이 세돈니 감동호시면 후사를 이홀 듯호오며 불구의 세계에 오시면 반가히 뵈오리다.” <제2장 전면>

⑥은 소양이 보시에 대하여 변화된 생각을 표현한 내용이다. 소양은 노승의 질문을 듣고 아들을 얻으려는 간절한 의지와 소망을 정성스러운 발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보아진다. 불교에서 발원은 참다운 자기 전환의 시작이며, 베푸는 마음을 연습함으로써 我相의 소멸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¹²⁾ 소양이 정성으로 발원을 한다고 한 말은 ‘나’에 대한 편벽과 집착에서

11) 윤율순 엮음,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도서출판 신우당, 1997), 153쪽.

12) 조계종 포교원 편저,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2003), 176~177쪽.

일어난 우월의식과 차별의식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자식이 없는 데서 일어난 열등의식과 한계의식의 고뇌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금강경』을 공부하여 자신 속에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을 강조한다.¹³⁾ 따라서 소양이 고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발견했다는 의미이다.

㉔은 소양의 발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 내용이다. 노승의 발언 가운데 “세돈니 감동호시면”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 또는 과시와 생색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행함으로써 ‘나’에 대한 집착을 끊고 깨달음의 지혜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후사를 이홀 듯호오며”는 소양이 아들을 얻을 수 있음을 예언한 내용이다. 따라서 노승의 예언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지향하는 발원이어야 아들을 얻는 복덕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소양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찾게 되었다. 노승은 깨달음의 지혜를 찾은 소양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도록 한다.

⑦ 혼연니 섬의 나라 두어 거름의 문득 간 디 업더라. 상서 그제야 부처 중인 줄 알고 게호의 나라 공중을 향호야 무슈히 사례호고 니당의 들어 부인을 향호야 그 말씀을 일르고 서로 위로호더라.<제2장 전면~후면>

⑦은 소양이 불교적 깨달음을 확인한 내용이다. 노승은 두어 걸음에 사라지는 행적을 보이며, 소양은 노승을 부처 중이라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종교적 신비 체험의 하나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소양의 종교적 신비 체험은 노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월의식과 차별의식, 권위와 재산에 대한 집착, 보시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다. 소양의 신비 체험은 깨달음의 지혜를 발견하고 현실의 고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편 『금강경』에서는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금강경』, 제5분>고 설명한다. 소양이 노승을 부처 중으로 알았다는 생각은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

13) 무비 스님, 『금강경강의』(불광출판부, 2001), 14쪽.

로 볼 수 있었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소양은 보시를 통해서 ‘나’에 대한 집착을 끊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깨달음의 지혜를 발견하여 자유로운 삶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된다.

<소대성전>의 처음 단계에 서술된 소양과 노승의 대화 내용은 보시와 복덕에 관한 일종의 논쟁이다. 이 논쟁 결과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이어야 복덕을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 말은 보시는 원인이 되고 복덕은 그 결과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는 <소대성전>의 내용에 작용하는 하나의 원리가 될 것이며, 소대성의 일생은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Ⅲ. 布施와 福德의 인과 구조

1. 衆生救濟의 不住相布施

소양은 아들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불전에 시주를 하였고, 노승은 소양에게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소양이 얻은 아들은 <소대성전>의 주인공인 소대성이다. 소양이 후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행복이다. 그렇지만 소대성은 십 세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으며, 부모의 삼 년 초토를 지낸 후에 가산을 정리하여 노복들에게 맡기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 집에서 떠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소대성의 불행한 시련이다. 따라서 소대성의 일생은 불행한 시련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소대성은 객점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노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날이 밝은 후에 그 노인으로부터 울던 사연을 듣고 가진 돈을 모두 주어버린다.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싱이 눈물을 지우고 탄식왈 “나도 천지을 일은 스릅일넌이 노인의 정성을 듯사오미 감격흔지라. 이거시 비록 저그나 장스의 붓터소서.” 노인이 금은을 밧고 빅비치스왈 “적지 안이 혼 지물을 쥬신이 노모의 희골을 거두옵

고 인간 죄인을 면하겠쓰오니 은혜 빚골 난망이라. 일후 갑기를 바라오니 거जू를 아웁고져 하나이다.” 쇼성이 답왈 “그디의 효심이 철천허거날 하늘이 지시허미라 갑기는 의논치 마웁고 장스나 평안이 지니소서.” 호고 이별 홀시 서로 권〃 혼 정이 비홀 디 업더라. 각셜 쇼성이 노인을 이별호고 낭턱이 비여시되 조금도 금은을 생각지 안이 호이 그 도량니 창회를 세아리더라.(제3장 후면~제4장 전면)

위의 글에서 ‘심’은 소대성이다. 소대성은 노인이 노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가진 돈을 모두 준다. 소대성의 이런 행위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하였고, 그 노인으로 하여금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수 있으며,¹⁴⁾ 소대성을 도량이 큰 인물로 형상화할 수법으로는 어색할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런 설명은 소대성이 노인에게 장례비를 주고 돌려받지 않으려는 행위만으로 한정하여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작품의 한 부분이며, 이 사건으로 평가된 창해와 같은 도량은 소대성의 전체 일생과 관련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작품 전체의 맥락에 작용하고 있는 원리에 근거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면 소대성이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왜 노인에게 가진 돈을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제시한 소대성의 발언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먼저 소대성은 “나도 천지를 일은 스름일년이 노인의 정성을 듯사오미 감격 혼지라”고 말한다. 이 말은 소대성이 부모를 잃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모친을 잃은 노인의 고통을 잘 이해하였고 노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다는 뜻이다. ‘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생각에서 일어날 수 있는 同體慈悲이다. 따라서 소대성이 노인에게 노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동체자비의 실천이라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갑기는 의논치 마웁고 장스나 평안이 지니소서.”라고 말한다. 이 말은 노인이 소대성에게 거जू를 물었을 때의 대답이다. 이 대답은 소대성이 노인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어떤 보

14) 조동일, 앞의 책, 311쪽.

15) 서대석, 앞의 책, 75쪽.

답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대성이 노인에게 장례비를 준 일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행위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행위는 동체자비의 마음으로써 衆生救濟를 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술자는 소대성에 대해 “낭턱이 비여시되 조금도 금은을 생각지 안이” 한다고 서술한다. 이 내용은 소대성이 노인에게 돈을 주고도 준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서술자는 “그 도량니 창혁을 세아리더라”고 평가한다. 이 평가는 동체자비, 중생구제, 그리고 돈을 준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 근거한다. 이런 보시가 不住相布施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소대성이 노복들에게 가산을 맡기고 노인에게 노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가진 돈을 모두 주었지만, 시련을 겪는 기간에 그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후회한 적도 없다. 소대성은 동체자비의 보시, 중생구제의 보시, 그리고 ‘남’을 위한 보시를 행한 인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보시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不住相布施이다. 소대성이 중생구제를 위하여 부주상보시를 행한 것은 앞에서 소양과 노승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살펴보았던 보시의 본질과 일치한다.

2. 廣大無邊의 無量福德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양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불전에 보시를 행하였고, 소대성은 노인이 노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아무런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부주상보시를 행하였다. 이런 소양과 소대성의 보시가 소대성의 일생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영보산 청룡사의 노승은 소양에게 정성을 다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이 암시가 태몽으로 구현된다.

수일 후의 부인니 혼 꿈을 어든니 천지 아득하며 벽역이 진동호 중의 청용니 구름을 허치고 드러와 부인을 향호야 기운을 토호이 그 기운이 변호야 동즈되여 부인 것딴 안치며 왈 “쇼즈은 동히 용즈옴더이 년간의 비 그릇 준다 호시고 상제님이 인간의 니치미 갈 바울 모로옴더이 영보산 청용스 부체님이 지시호시미 왓사오이 부인은 어엿비 여기옴쇼셔.” 부인이 놀니 췌다르니 남가일몽이라.<제2장 후면>

윗글은 소대성 출생의 태몽을 서술한 내용이다. 태몽에 따르면 소대성은 동해 용의 아들이며, 영보산 청룡사 부처의 점지로 인간 세계에 태어난 인물이다. 그런데 태몽에서 서술된 청룡사는 노승이 소양의 보시로 중수한 절이다. 소대성 출생의 태몽은 노승이 소양에게 “세튼니 감동하시면 후사를 이홀 듯호오며”라고 이야기한 암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징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소양이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은 청룡사에 보시한 공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청룡사의 부처는 소대성의 출생을 점지할 뿐만 아니라 소대성이 위기를 당할 때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 소대성이 처가에서 자객을 죽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한 동자의 지시에 따라서 청룡사를 찾아간다. 노승은 소대성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디상공계옵서 슈천양 금은을 시주호옵시거늘 절을 중슈호옵고 여러 세존께 발원호와 상공즈을 소문의 점제호와 후사를 잇게 호옵고 또한 상공이 소승과 다섯 히 연분이 잇는 고로 이리 오시미 천슈오니 혼치 말소셔.”<제18장 후면~제19장 전면>

윗글은 소대성이 청룡사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다. 소양은 청룡사를 중수하는 데에 시주를 하였고, 노승은 여러 세존에게 발원하여 소양의 가정에 소대성이 태어나도록 하였으며, 소대성은 노승과 다섯 해 동안의 연분이 있기 때문에 청룡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대성은 청룡사에 머물면서 천문의 변화를 보고 북방 호족이 중원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북방 호족의 난은 소대성의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그런데 소대성이 이승상에게 “장부 세상의 처호야 문무를 겸전호여다가 난세를 당커든 전장의 나아가 흥격을 쓰러쳐 빅성을 도탄중의 건지미 장부의 썬”호 모척이여늘 엇지 서척만 디호여 세월을 보닛릿가?”<제8장 전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은 소대성이 의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아가려는 발원이라고 보아진다.¹⁷⁾ 따라서 북방 호족의 침범은 소대성이 발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6) 서대석, 앞의 책, 76쪽.

17) 조계종 표교원 편저, 앞의 책, 177쪽.

소대성은 청룡사에서 출전하려고 하지만 전쟁 기구가 없는 처지를 걱정한다. 노승은 소대성에게 “장이 십척니요 은 〽 〽 〽 칠성이 박켜겨늘 별을 응하야”〈제22장 후면~제23장 전면〉 이름을 붙인 칠성검을 준다. 정혼녀 아버지인 이승상의 영혼은 “입으면 니게 유익하고 남으게 히로오며 몸의 창검이 능히 범치 못하느”〈제29장 전면〉 보신감을 준다. 그리고 산신으로 인식되는 한 노인이 “청천을 바라며 구름을 헤치고져 하느듯 기상이 혼연”〈제25장 후면〉한 청룡마를 준다. 소대성은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으로 신이한 전쟁 기구를 완전히 갖추고 북방 호족과의 전쟁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소대성이 청룡사에 머물면서 노승과 함께 불경을 의논하고 병서를 잠싹했다. 서술자는 이런 소대성의 생활에 대해 “천지의 무스식이노 산중의 유발승일네라.”〈제19장 전면〉라고 묘사한다. 이 내용은 소대성이 승려이었거나 아니면 승려와 유사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의 출전은 승병 활동일 수 있음을 짐작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는 소대성의 전투 활동과 함께 다른 글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소대성이 전장에서 북방 호족 왕에 유인을 당하여 자운동으로 들어가며, 호족 왕은 자운동에 불을 질러 소대성을 불태워 죽이려고 한다. 소대성이 불길에 갇히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화덕진군이 소대성을 구출한다. 화덕진군은 소대성을 구출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인 왈 “나는 천상 남천문 밧그 잇는 화덕진군일너니 어제 서가여리켜 읍셔 중국 디장 소대성이 명일 오시에 즈운동 화지를 불 거신니 구완하라 하시거늘 와건이와 만일 더디든들 세존의 부탁이 허스 될났다. 무릇 장수 적군을 너머 경이 보면 환을 보논이 호왕은 범상흔 스릅이 안이다.”〈제32장 후면〉

위의 설명에 따르면 화덕진군이 소대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이유는 석가 여래가 화덕진군에게 소대성을 구원할 것을 부탁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대성은 호족과 싸워서 승리한다. 소대성이 황성에서 호족 군사를 진압하는 동안에 호족 왕이 천자에게 항복 문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천자는 호족 왕의 강요에 따라서 항복 문서를 쓰려고 한다. 이 때에 소대성이 황성으로부터 돌아와서 호족의 왕을 베고 천자를 구한다. 천자는 소대성에게 “왕을

봉헌여 희동 십만호를 주시고” <제37장 전면> 노왕 인수를 사급한다. 소대성이 노국을 다스리는 동안 “노국이 티평호야 도불십유호고 산무도적호며 강구연월의 동노와 흠포고복의 격양가를 일습는지라 엇지 후록이 장구치 안이 흐리요? 즉 ” 손 ” 이 계 ” 승 ” 흐더라.” <제43장 전면>라고 서술한다. 나라는 태평하며, 백성들의 삶은 안락하게 되며, 그 자손들의 후록이 장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소대성의 발원은 호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대성이 발원을 이룬 이유는 아버지의 보시를 통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노인에게 중생구제를 위한 보시를 했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대성은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야 한다고 발원을 했으며, 자신의 발원을 실현하는 과정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었으며,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았고, 호족의 침략을 정복하였으며, 노왕으로서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린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소대성의 삶은 광대무변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광대무변한 삶을 통해서 무량의 복덕을 이루었다고 보아진다. 소대성의 광대무변한 삶과 무량의 복덕은 동체자비의 보시, 중생구제의 보시, ‘남’을 위한 보시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승과 소양의 대화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던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가 <소대성전>에 서술된 소대성의 일생에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V. 작품의 爲人演說의 의미

<소대성전>에 서술된 소대성의 일생이 노승과 소양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 보았던 보시와 복덕의 인과 구조에 따라서 구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소대성의 일생이 보시와 복덕의 인과 구조에 따라서 창작된 궁극적인 의의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금강경』에서 찾고자 한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財布施와 法布施로 구분한다. 재보시란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며, 법보시란 부처님의 법을 원하는 자에게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¹⁸⁾ 『금강경』에서는 재보시와 법보시의 차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인용한다.

- ㉞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 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 할지라도 만약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보살심을 발한 자가 이 경전을 가지되 내지 사구계 등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하여 남을 위해 연설하면 그 복덕이 저보다 수승하리라(若有人 以滿無量阿僧祇世界七寶 持用布施 若有善男子善女人 發菩薩心者 至於此經 乃至 四句偈等 受持讀誦 爲人演說 其福勝彼).<『금강경』, 제32분>

윗글은 재보시의 복덕과 법보시의 복덕을 비교한 내용이다. 아승지 세계를 가득 채우는 칠보로써 하는 보시는 재보시이다. 그리고 『금강경』의 四句偈를 지니고 독송하여 남에게 연설하는 것은 법보시이다. 법보시의 복덕이 재보시의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는 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한편 『보현행원품』에서도 법공양의 공덕이 많은 재물을 공양하여 얻은 공덕보다 많다고 가르친다.¹⁹⁾ 이 내용은 부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불교의 경전에는 四句偈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구계는 그 경전의 핵심이 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구계의 뜻을 잘 이해하면 그 경전 전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²⁰⁾ 『금강경』에는 네 개의 사구계가 있다.

- ㉟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凡所有相),
모두가 허망하니(皆是虛妄),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若見諸相非相),
곧 여래를 보리라(卽見如來).<『금강경』, 제5분>
- ㊱ 응당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不應住色生心),
응당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응당 머문 바 없이(應無所住)
그 마음을 낼지니라(而生其心).<『금강경』, 제10분>
- ㊲ 만약 색신으로 나를 보거나(若以色見我),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以音聲求我),

18) 문중남·안자미 편, 『불교의 이해와 신행』(조계종출판사, 2004), 187쪽.

19) 광덕 스님 편역, 『보현행원품』(해인총림, 1969), 12쪽.

20) 무비 스님, 앞의 책, 53쪽.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是人行邪道),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不能見如來).<『금강경』, 제26분>

- ㉔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一切有爲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如夢幻泡影),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如露亦如電),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應作如是觀).<『금강경』, 제32분>

㉓는 제1사구계이다. 圭峰은 보이는 일체의 상이 모두 無相한 것이었을 때 곧 여래라 한다고 여래의 뜻을 설명하였다.²¹⁾ 이 사구계는 어떠한 형상을 형상이게 한 근본은 영원한 것이며 불변의 것이지만 현재 눈앞에 보이고 생각으로 잡히는 것은 일체가 다 허망하며, 이 허망한 것을 허망하게 볼 줄 알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여래가 나타난다는 뜻이다.²²⁾

㉔는 제2사구계이다. 說誼는 無所住란 내외가 없고 중간도 비어서 선악 시비를 가슴속에 두지 않는 것이며, 生其心은事に 응하되 物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³⁾ 이 사구계는 마땅히 물질이나 현상, 감정에 머무름이 없이 생각을 낼 때에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청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²⁴⁾

㉕는 제3사구계이다. 六祖는 相으로써 부처를 觀하거나 소리 가운데서 법을 구한다면 마음에 생멸이 있어서 여래를 깨닫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²⁵⁾ 이 사구계는 설법을 가지고 여래를 구하려면 샅된 길을 가는 것이어서 여래를 보지 못하며, 불심이 깊어지면 허공을 보고도 부처를 떠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²⁶⁾

㉖는 제4사구계이다. 이 사구계는 『금강경』 전체의 뜻을 잘 나타낸다. 마음에 잡히는 모든 함이 있는 법, 즉 유위법은 잠시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진다. 그러므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깨달음의 지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²⁷⁾

21) 무비 역해, 앞의 책, 162쪽,

22) 무비 스님, 앞의 책, 57쪽.

23) 무비 역해, 앞의 책, 241~242쪽.

24) 무비 스님, 앞의 책, 111쪽.

25) 무비 역해, 앞의 책, 479쪽.

26) 무비 스님, 앞의 책, 254~255쪽.

27) 무비 스님, 앞의 책, 280~281쪽.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의 내용은 상에 머무름이 없이 생각을 하고, 보시를 하고, 함이 없이 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양과 노승의 대화에서 노승이 발언한 내용은 상에 머무름이 없이 생각하고 보시를 하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소양은 노승의 말을 들은 후에 노승을 부처 중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소대성이 북방 호족을 정벌하기 위해 노승과 헤어지는 장면은 노승이 “구름을 타고 공중의 표연니 가거늘 아모더로 가는 줄 모로올네라. 심이 그제야 부처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스레호고” <제23장 전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장면은 소양이 노승에게 시주를 한 후에 노승을 부처 중인 줄 알았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다. 소양과 소대성이 청룡사 노승을 부처인 줄로 알게 된 것은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노승의 발언과 행위가 소양과 소대성에게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며, 소양과 소대성은 노승의 설법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일련의 내용으로 볼 때에 노승이 소양에게 보시의 본질을 깨닫도록 한 이야기는 소양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한 것이며, 소대성의 일생은 상에 머무름 없이 생각하고, 보시하고, 중생을 구제한 복덕이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대성전>은 불교사상을 爲人演說하는 방편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V. 결론

<소대성전>의 창작 원리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를 작품에서 모색하였고, 이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 작품에 작용하고 있는 원리의 의미를 『금강경』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짓고자 한다.

<소대성전>의 처음 단계에서 서술된 소양과 노승 사이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보시와 복덕에 대한 일종의 논쟁이다. 소양은 이 논쟁을 통해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가 복덕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다. 보

시는 원인이 되고 복덕은 그 결과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는 <소대성전>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될 것이라 보았다.

<소대성전>에 서술된 소대성의 일생을 분석하였다. 소대성은 아버지의 보시를 통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고 태어나며, 부모의 사후에 노복들에게 가산을 맡기고 집에서 떠나고, 노인에게 노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가진 돈을 주며, 이후에 많은 시련을 겪지만 노복에게 맡긴 재산이나 노인에게 돈을 준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후회한 적도 없다. 이런 소대성은 ‘나’라는 생각이 없는 인물로 형상화되었으며, 상에 머무르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보시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소대성은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려고 발원하며, 발원을 실현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의 어려운 시련을 겪고,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극복하며, 노나라의 백성이 편안하게 살도록 다스린다. 이런 소대성의 삶은 광대무변하며, 헤아릴 수 없는 무량의 복덕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소대성의 일생이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로 전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대성의 일생에서 드러난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는 소양과 노승의 대화에서 살펴본 작품 창작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소대성의 일생에서 분석한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미를 『금강경』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금강경』은 사구계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한 복덕이 철보의 재물을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금강경』은 사구계를 통해서 상에 머무름이 없이 생각을 하고, 보시를 하고, 함이 없이 하라는 것을 가르친다. 소대성의 일생은 『금강경』의 불교사상을 실천한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소대성전>은 불교사상을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작품의 흥미 요소인 전쟁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가 <소대성전>의 의미 형성에 어떠한 작용을 하며 불교사상의 위인연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언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제어 : <소대성전>, 『금강경』, 창작 원리, 중생구제, 부주상보시, 광대무변, 무량복덕, 위인연설

참고문헌

- <소대성전> 완판 43장본, 권우행 교수 소장.
- 광덕 스님 편역, 『보현행원품』, 해인총림, 1969.
-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학 개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4.
- 무비 스님, 『금강경강의』, 불광출판부, 2001.
- 무비 강해, 『금강경오가해』, 불광출판부, 2004.
- 우승택, 『삼상사성』, 도서출판 장승, 2003.
- 윤을순 엮음,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도서출판 신우당, 1997
- 조계종 포교국 편저, 『불교교리』, 조계종출판사, 2001.
- 조계종 포교국 편저,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03.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성명수리학적 연구」, 동남어문학회, 『동남어문학』 제 19집, 동남어문학회, 2005, 51~71쪽.
- 김일렬, 「소대성전의 후대적 변모」,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148~171쪽.
- 김일렬, 「소대성전」, 완암김진세선생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323~336쪽.
-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소대성전, 장익성전, 설인귀전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2』,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4.
- 이복규, 「소대성전」, 황태광교수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고소설연구』, 일지사, 1993, 696~711쪽.
- 전상경, 「소대성전과 유충렬전의 상관성 소고」, 『고소설연구 1』, 한국고소설학회, 1995, 391~418쪽.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희웅, 「낙성비룡과 소대성전의 비교고찰」,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8, 463~471쪽.

<Abstract>

The Study of *the Tale of Soh Dae-seong* Creation Principle on Buddhism

Kim, Byeong-Kweon

This study aims to search the principle of being applied consistently to *The Tale of Soh Dae-seong*.

First, I searched the principle of understanding the text by analyzing the dialogue between Soh Yang and an old Buddhist monk. In the dialogue, Soh Yang realizes that we can reach the reward of virtue by giving alms⁽¹⁾ *dana* without staying at the ²⁾相"(nimitta, a distinctive mark). This means that *dana* is the cause and *the reward of virtue* is the effect. Therefo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ana and the reward of virtue* is one of the principles that could create *The Tale of Soh Dae-seong*.

Second, I analyzed the whole life of Soh Dae-seong as the relationship between *dana* and the reward of virtue. Soh Dae-seong gives alms good to all human beings, and rises up against the oppression on all the people. He suppresses the attack of the invaders with the help of the supernatural existence whenever he undergoes bitter trials, coming to the throne of "魯". The fact that Soh Dae-seong, overcoming the difficulties, become a king can be interpreted as the reward of virtue for giving alms. Therefore, *The Tale of Soh Dae-seong* is the work in which Soh Dae-seong's whole life is developed depending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ana and the reward of virtue*.

Third, I interpreted the whole life of Soh Dae-seong in relation to ³⁾*The*

1) *dana*(다나) 산스크리트어 - '보시'를 의미함

2) *nimitta*(니밋타) 산스크리트어 - 눈에 보이는 뚜렷한 표식, 특징을 말함.

Diamond Sutra. According to *The Diamond Sutra*, *dana*, acquirable with the elucidation of ⁴⁾*Dharma* is more valuable than the reward of virtue, acquirable with the giving of property. The whole life of Soh Dae-seong serves to explain the value in *The Diamond Sutra* that we can attain the holy way by seeing nimitta as what is not nimitta. Therefore, ⁵⁾*The Tale of Soh Dae-seong* is the work created as the means of explaining readers Buddhism.

Key Words : *The Tale of Soh Dae-seong*, *The Diamond Sutra*, salvation of sattva, vast and boundless, infinite reward of virtue

3) *The Diamond Sutra* 금강경

4) *Dharma*(드하르마) 산스크리트어 - ‘법’을 의미함

5) *The Tale of Soh Dae-seong* 소대성전